

## 第6回亞細亞太平洋齒科聯盟(第1回世界齒科聯盟亞細亞

### 太平洋地域會)總會를 마치고

亞細亞 太平洋齒科聯盟 會長

李 有 慶 D.D.S., F.I.C.D.

◇…◇第六回 APDF總會에서는 무엇을 論議하였으며 또한 APDF(亞細亞太平洋齒科聯盟)가 FDI에 ◇…◇  
◇…◇亞細亞太平洋地域會(APRO OF FDI)가 됨에 따라 從來보다 무엇이 달라졌는지 또한 三年前 ◇…◇  
◇…◇에 우리 大韓齒科醫師會에서 開催하였던 第五回 APDF總會와 比較해서 筆者가 느낀點을 記 ◇…◇  
◇…◇述코져 한다. ……………(筆者註) ◇…◇

第6回 APDF總會(Congress)는 第5回總會時 서울에서 決議한대로 泰國首都 방콕에서 지난 11月18일부터 22일까지 舉行하였다. 22일은 最終日로 觀光만가고 싶은 會員만 갔기때문에 總會는 4日間に 끝마춘 셈이다.



各國 代表들이 자리를 같이한 가운데 眞摯하게 會議가 進行되고 있다.

總會場所는 約2年前에 建築한 방콕市內中央에 있는 The Dusit Thani Hotel이었는데 約20層建物로서 서울에 있는 조선호텔모양에 三角形으로 여든가 泰國式建築에 잘꾸며진 現代式아담한 호텔이었다.

내가 보기에는 設計가 잘된것 같아서 물어보니까 어느 日本人이 設計를 했다고 한다. 이번의 參席會員數에 比較해서는 場所가 좀 좁은感이 있었으나 全體會議를 호텔一層에서 同時에 다할수 있었던 것은 價便하였고 主權側에서 費用도 덜 들었을 줄안다.

然中 今般第6回總會도 서울서 開催한 第5回總會와 마찬가지로 以下에 列擧한 5種目的 行事가 合해서 이루어졌다.

#### 1. Business meeting(名國代表國總會談)

2. 齒科學會
3. 展示會
4. 代表會員接待(Entertainment)
5. 觀光等이다.

今般開會式과 閉會式에는 會員全體가 參席하여서 持異한 順序로 盛況을 이루었다.

#### 開會式—

開會式은 18日 午前 9時30分부터 호텔 一層大講堂에서 約 1,200餘名의 會員과 손님들이 參席하였다.

壇上에는 泰國國務總理 Mr Thanam Kittikachorn을 爲始하여 FDI 事務總長 Dr Leatherman及 FDI의 副會長 FDI의 次期會長 Dr Hillenbrand는 事情으로 參席豫定이었으나 不參하였고 其外 APDF의 會長 副會長 泰國齒科醫師會會長 各國首席代表 外國招請講師等이 座烈하였고 壇左側에는 泰國古典 오케스트라가 자리를 잡았고 壇左側에는 佛敎祭壇과 7名의 僧侶가 特別히 꾸며진 壇上에 正座하였었다. 그리고 一般席에는 日本齒科醫師會에서 參席한 會員이 約 180餘名 濠洲에서 約70名 APDF의 會員은 아니지만 이번 期會에 訪問한 西獨齒科醫師가 約 60名, 가나다에서 6名, 自由中國서 6名, 필리핀에서 12名, 인도네시아에서 7名, 싱가포르— '에서 5名, 말레이아에서 5名, 印度에서 1名, 뉴질랜드에서 1名 홍콩에서 1名, 베트남에서 5名, 美國서 約20餘名 韓國서 12名等 APDF事務長의 呼名으로 起立紹介되었고 其外泰國會員 그리고 손님 合해서 約1千2百餘名의 齒科醫師가 參席하여서 오케스트라의 泰國國歌演奏로 開會式은 始作되었었다.

그리고 國國務總理의 佛式祭壇에 촛불과 燭에 點火 祝文朗誦, 禪공僧侶等의 念佛等 約30分間의 外國에서보

지못한 프로그램을 爲始하여 泰國齒科醫師會會長の 開會辭泰國國務總理 及 Dr Leatheman의 祝辭等 特히 聽衆으로 注目을 끄는것은 美貌인 泰國團사들의 아름다운 泰國무용이였었다.

開會式에서 한두가지의 音樂順序대신에 무용順序도 참 効果的이였었다.

後에 들은말이지만 泰國의 公式會合에서는 거의 會議의 始作을 佛祭壇에 奉拱하는 것으로 開會를 한다고 한다. 佛敎國이니만큼 佛敎儀式이 一般社會의 모든일에 儀式化되어있는것을 처음으로 보게된 나로서는 꽤 平和스러웠었다. 開會式은 壯嚴하였다고 보다는 盛況이였고 아름다웠었다. 特히 開會式 마르막 포로로 Alabama大學齒科大學長 Dr Joseph에 「未來에 齒科學」이라는 題目下에 特講은 많은 感銘을 주었다.

### Business meeting

이것은 各國首席代表 1명과 若干名の 副代表와 옮겨 버 FDI의 事務總長 其外 關係員들만이 非公既裡에 開催하는 重要會議이다. 우리韓國은 徐永圭會長께서 首席代表로 參席하였고 副代表로 金貴善 文洪祚其外 문영환 氏등 몇분이 옮겨버로 參席하였다. 그런데 이번에도 討議事項中에 몇가지 事項에 對해서 正式으로 會議가 開催되기 日前부터 各國代表들間에 論難이 많아 할수없이 正式會議의 時間을 줄이기 爲해서 또는 좋은 零函氣에서 會合을 進行하기 爲하여 豫定以外의 準備 會議를 2 次나 벌렸었다.

첫째 問題는 今般總會의 名稱이다. 即 今般總會는 第 6回 APDF總會이지 第一回 FDI의 亞細亞太平洋地域會로 하는 것은 어찌된 것이나, 우리가 FDI와 關聯을 지으려고 試圖하기는 오래前부터이지만 最終決議는 今番 會議에서 해야할 것이 아니냐, APDF의 名稱이 別써 없어지고 第一回 FDI의 亞細亞太平洋地域會가 이미 된 것과 같은 印象을 주는 것은 옳지못하다. 우리가 第3, 4, 5回 APDF總會때마다 FDI와 무슨 關聯을 지으려고 많은 會議를 한것은 事實이지만 이미 15年 間이나 繼續한 APDF이름을 그대로 살려가지고 FDI에 들어간단든지 或은 FDI의 地域會가 된단든지 하는것을 願하였었지 APDF名稱을 없애고 FDI의 地域會가 된다는 것은 다시 생각할 問題다하는것이 1, 2會員國家만 無關心하고 다른 會員國家는 거의 全部가 같은 心帶이였었다. 그러해서 豫備會談에서도 結局 名稱에 對해서 妥協을 보지못한대로 本正式會談에 드러가게 되었다.

그런데 FDI의 事務總長인 Dr Leatherman은 어떻게 된 셈인지 이번부터는 第 1回亞細亞太平洋地域會가 되고 舊名稱인 APDF는 쓰지않기로 이미 作定되지 않았느냐 FDI의 地域會가 될려면 APDF는 없어야 된다는 것이 그의 立場이다. 本人에게도 당신들이 APDF든지 APRO(亞細亞太平洋地域會)든지 두가지中에 하나를 擇 하여야 하지 두이름을 다 가질수는 없다고 여러가지 말을 하였다. 그러나만큼 本會談에서 어떻게 落着이 되려

는지 豫想키 어려웠었다. 그다음으로 다른 問題는 다음 1973년에 開催할 第7回 APDF Congress의 場所問題다

그런데 問題는 本會의 事務長이자 FDI의 副會長인 필립핀의 Dr 「Erana」와 또 本會第2副會長이며 FDI의 副會長인 濠洲의 Dr Grainger이 參席하였으니 만큼 지난 9月 루마니아 「부카레스트」에서 1970年 FDI年會를 開催할때에 Dr Leathrman과 같이 1973년에 第7回 APDF總會를 濠洲에서 開催하기로 濠洲齒科醫師會에 이미 約束을 하였든 것이다. 其理由は 1973년에는 「시드니」 濠洲에서 5년에 1次式 開催하는 FDI의 大齒科醫學會兼 第61次總會를 開催하기로 決議하였고 또 同時에 第20回濠洲齒科醫師會總會를 開催하게 되느니만큼 第7回APDF Congress도 같이 開催하였으면 被此 會員에게 좋지않겠느냐하는 생각에서 依例히 이번 第6回APDF總會에서 通過될것으로 알고 濠洲齒科醫師會에 約束을 하였든 것이다. 그러나 1973年度 第7回APDF總會는 인도네시아 「자갈타」에서 하겠다고 인도네시아齒科醫師會에서 강경히 願하느니만큼 問題가 된것이다. 또 그리고 大部分의 會員齒科醫師會에서는 「인도네시아」는 古參APDF會員國家이니만큼 또는 濠洲에서 여러가지 큰 行사가 同時에 舉行하게 되면 APDF總會는 그렇게 主要視되지 않을것이 아니냐 또다른 理由는 濠洲는 아직 新入會員國家가 아니냐는 등의 理由로 「인도네시아」에서 開催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問題가 되었다. 그러나 濠洲의 齒科醫師會長인 Dr Norton氏의 너그러운讓步로 氣分중계 이會談에서 1973年の 第7回APDF總會는 濠洲 시드니에서 開催하는 FDI의 總會日字보다 約10日前이나 10日後에 「자갈타」 「인도네시아」에서 開催하기로 打協을 보았다. 1973年度 FDI總會는 同年 7月 濠洲 「시드니」에서 開催하기로 되었고 日字는 未定이다.

그다음問題는 次期會長이 누가 되느냐하는 打協이다. 會長이 되겠다고 애쓰는 분들이 없으면 別問題가 안될 터인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問題이다. 次期會長은 濠洲의 Dr Grainger이 될것이라고 말하는 代表들도 있고 또 次期總會場所가 「인도네시아」이니만큼 인도네시아 齒科醫師會長이 次期會長이 되어야하지 않겠느냐 하는 代表들도 많았었다. 그러나 이 會長問題에 있어서도 어느분을 選擇할것 인가의 意見을 一致시키지 못한채 豫備會談은 散會되었었다. 然中 한가지 아름다운일은 泰國齒科醫師會에서는 次期會長職이나 副會長職은 極히 辭讓하고 이번 第6回總會가 成功할 수 있는 것으로 最大의 滿足을 表明한 것이다. 우리도 그러한 雅量이 있었으면 하였다.

本會談은 豫定대로 11月 19日 午前9時부터 始作해서 2日 間半이나 繼續하였다.

會談은 順序에 依해서 會長의 開會辭가 있었고 그다

음에 FDI事務總長の 「메세지」가 있었고 따라서 本會事務長 Dr Erana의 各國代表 呼名 및 紹介가 있었고 全員出席을 報告하였다.

今般에는 印度代表까지 처음으로 參席하여서 여러 回만에 全員이 參席한 셈이었지만 後에 印度國이 脫退가 되기때문에 結局은 13個國代表와 FDI事務總長の 參席下에 會議은 進行되었었다. 本人이 바라기는 本人은 開會辭나하고 FDI事務總長이나 紹介하고 몇가지 報告나 받고는 定款에도 있느니만큼 第1副會長이나 第2副會長에게 司會를 맡기는 것이 健康도 좋지않았지만 나의 서툰 英語와 不足한 經驗을 가지고 司會하는 것보다 會進行의 圓滑을 爲해서 좋으리라 생각하고 事務長과 우리 副會長들과 別個로 數次相議하였으나 微妙한 關係로 할수 없이 끝까지 서툰 英語로 司會하느라 답을 흘렸다. 其裏面에는 서도 말 못할 理由가 있다. 즉 내가 司會를 맡하게되던 定款에 依해서 第1副會長인 日本의 Dr 「유아사」가 司會를 하여야 하는데 그분은 나보다도더 英語會話를 못하고 그이가 또한 不學하다고 하여야 第2副會長인 濠洲의 Dr Grainger이 司會를 하게되는데 Dr Grainger이 司會를 하여야 司會經驗이 많으니만큼 아주 圓滿히 되게 되어있다. 그런데 第1副會長 「유아사」가 사양을 하여야 第2副會長인 Dr 「Grainger」에게 司會를 맡길수 있지 萬一第1副會長이 通譯을 다리고라도 司會를 하겠다고 하는 境遇에는 그만두라고 할수도없고 내가 司會하는 것보다 더 큰일이 생기지 않겠느냐 國際會議司會에 있어서는 더러 通譯을 다리고 司會하는 일이 없지않아 있기때문에 내가 꼭 司會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분은 第2副會長인 濠洲의 Dr Grainger이 司會를 잘 할수 있는 것은 事實이지만 그분은 次期會長에 物望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司會를 나代身 할하던 問題없이 次期會長으로 被選되기가 쉽기 때문에 司會를 식힐수 없다는 것이 그가 次期會長이 되는 것을 싫어하는側 사람들의 말이다. 其外에 重要役員間에 微妙한 問題로 因해서 司會를 그리 잘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꼭 司會를 하여야 한다고 壓力을 加하기때문에 2日間半이나 담배는 피울줄모르지만 담배한대 피울 사이도 없이 司會를 하였다. 左右間 大過없이 司會를 다해치운것은 내가 생각해도 多幸한 일인줄로 생각한다.

그렇지만 내가 보기에는 利權도 없는 國際會합이고 相互의 親睦을 주로 圖謀하는 會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細密한 點에까지 이와같이 軋轢이 있는것을 보고 匪然한 感이 없지 않았었다.

그다음에는 各部報告가 있었다. 報告中에 재미있고 重要하고 잘한 報告는 APDF會計인 香港의 Dr Yap의 會計報告이었다. Dr Yap은 지난 10月 우리 大韓

齒科醫師會總會의 FDI代表로 오셨든 분이다. 이분은 會計報告도 잘하였을뿐 아니라, 우리 總會에 參席하고 우리 大齒에 對해서 아주 좋은 報告를 FDI事務總長 Dr Leatherman에게 하였기 때문에 내가 Dr Leatherman으로부터 徐永 圭會長을 代身해서 한참이나 稱贊을 받았다. 많은 會員이 全國의으로 그렇게 代表들을 中央總會에 보내서 會議을 正然히하고 또 學會를 數日間이나 通하여 開催한데 對하여 報告를 받고 크게 感銘을 받았다고 하며 特別히 Dr Yap이 其前날 저녁에 준 自己의 여러장의 英文 메세지들을 하루저녁에 韓國語로 翻譯이 되어서 英語原文과 같이 其翼日午前에 自己가 演說할 때에 百餘名의 各代表의 손에 하나도 빠짐없이 翻譯文을 分配하여준것을 보고 놀랐다는 報告도 받았노라고 하면서 自己는 APRO將來에 있어서 韓國齒科同療에게 큰 期待를 가진다고 Dr Leatherman으로부터 稱贊을 받고 事實 한두가지點만 우리나라 齒科醫師들이 좀더 잘하면 一類先進國 家齒科醫師會에 지지않으리라는 것을 自負하면서 徐永 圭會長以下 中央의 理事여러분들에게와 各地에서 애쓰시는 役員 및 會員여러분들에게 感謝함을 禁치 못했다.

Dr 「Yap」은 香港國家에서 齒科最高責任者로 大端히 분주한 사람이다. 特別한일로 今般 APDF, Congress에 參席을 못하고 香港齒科醫師會會長 Dr Wong이 香港의 首席代表로 Dr 「Yap」의 報告를 代身報告하였었다. 會計報告는 아주 廣範圍하게 論하였다.

그런데 우리가 한가지 알아들것은 우리나라에서나 日本에서는 報告는 報告대로 받고 報告에 對하여 總會에서 議論할 事項이 있으면 두어두었다가 討議事項에 가서 再論決議하는 것이 常例이지만 外國의 例를 보면은 報告를 받을 때에 例를 들어서 定款을 指定하고 議論決議하여야 할것이 있으면 報告받는 途中에 하나씩 決議하는 것이 常례이기 때문에 報告받는 時間이 어떤 것은 大端히 오래 걸리지만 어느 報告를 採行 採用登錄하게 되며는 重要的 總會의 일도 大部分 끝나게 되는 일이 많다.

今般 Dr Yap의 會計報告에 있어서도 各國會員齒科醫師會에서 支拂하여야할 會費와 또 APDF가 되는 同時에 FDI에 支拂할 會費와 APDF에 支拂해야할 會費 또 兩會費關聯에 있어서의 모순點 또 會費를 策定하려면 會名改正도 關聯되고 또한 定款의 改正을 하여야할 境遇도 있기 때문에 이번이 이會計報告하나 받는때 있어서 아마 午前午後 하루가 걸린걸로 생각한다. 豫備會談에서도 크게 論議되었든 會名改稱問題도 이 會計報告받을 때에 結局論議決定되었다. 會名改稱에 있어서는 豫想과 같이 신랄한 發言이 있었다. 그러나 結局 FDI事務總長

Dr Leatherman의讓步로 두가지名稱을 다 使用하기로 決議가 되었다.

그다음에는 各國家會員齒科醫師會의 會費支拂狀況이다. 會計報告에 依하면 日本, 濠州, 뉴질랜드等以外에는 全部가 2,3年以上의 會費를 支拂하지 않았다. 定款에 依하면 特別理由없이 6個月以上會費를 支拂치 않으면 自然히 會員의 資格이 없어지게 되어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總會席上에서 各首席代表에게 하나하나 언제까지 支拂할수 있는것의 作定如何에 依하여 會員整理를 하였다. 그러해서 結局 印度는 會員의 資格을 喪失하였다. 또 그리고 亞細亞太平洋地域에 있는 모든 國家의 齒科醫師會로서 FDI에 入會하려면 心히 APDF(APRO)를 通해서 入會할수 있도록 決定이 되었다. 또 다른 事項을 決議한 것 中の 하나는 FDI의 會費는 FDI New York 總會時에 改正한 定款에 依하여 會費를 計算한 結果 例를들면 우리나라의 FDI會費는 前에 1年分이 6百80餘弗이었던 것이 單 50US弗로 되었다.

그런데 APDF(APRO)의 會費는 現在定款에 依하여 計算하면은 FDI의 會費보다 1년에 3배가 많은 1百50弗이다. 이 모순을 없애기 爲해서 FDI에 支拂하는 會費額數에 比例해서 支拂하기로 定款을 改正하였다. 그렇게 되던 우리나라의 1년의 APDF會費는 約30弗로 줄어 들게 된다. 其外 收入과 支出豫算이 策定되었으나 하는 事業이 軌道에 오르지를 못하였기 때문에 많은 額數가 못되고 그대로 通過되었다. 그다음에는 第5回總會時에 APDF에 한 事業으로서 齒科教育問題와 齒科公衆保健問題에 關해서 會員各國의 狀況을 研究하여 報告하게 하기로 하고 그것을 土台로 各國의 事情을 平準化시키 볼 모양으로 特別委員會를 組織해서 研究하게 하였든일이 있었다. 그러해서 齒科教育에 關해서는 생카들의 Dr Jensen을 委員長으로 任命하였고 齒科保健問題에 關해서는 필립핀의 Dr Season을 委員長으로 任命한 일이 있었다. 然中 Dr Jensen은 當日口頭로 報告를 했고 Dr Season은 身病으로 結局辭退한 셈으로 報告가 없었다.

定款에 依하면 모든 報告는 書類로 事務長에게 提出하되 總會日字부터 90日前에 提出하게 되어있고 事務長은 總會 1個月前에 적어도 各國家會員齒科醫師會에 보내서 미리 研究하게 되어있다. 그런데 Dr Jensen은 齒科教育에 對하여 當日口頭報告를 하였었기 때문에 各國代表들이 充分히 알어서 研究할 時間이 없고 또 同時에 1人의 研究報告가 되어서 實感이 不足하다는 理由로 報告단 듣는데 끝이고 또 다시 委員長을 擇해서 같은 問題를 研究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今般에는 日本의 Dr Husayama를 齒科教育問題에 對해서 委員長으로 選擇하였고 그리고 뉴질랜드의 Dr Fuller를 齒科保健問題의 委員長으로 選擇하였다. 이번에는 좋은 結果가 있기를 바라 하지 않는다.

그다음의 討議事項으로 提出되었던 重要條件이 하나 있다. 卽 齒牙位置表示問題이다. 至今까지 全世界를 通해서 使用하는 方法은 永久齒나 乳齒位置表示에 있어서 84654321|12345678 以上과 같이 正中線를 가지고 左 87654321|12345678 右, 咬合線을 가지고 上下를 區別하여 表示하여 왔었다. 그러나 지난번 FDI本會에서 至今까지 使用한 方法은 電氣計算器의 使用할 수 없다는 것을 理由로 正中線이나 咬合線을 쓰지않고 그저 數字만 가지고 永久齒나 乳齒의 位置를 알 수 있도록 아래와같이 改正해서 使用하기로 決議한 바 있었다.

右	영구치	2827262524232221		1	2	3	4	5	6	7	8	左
	유치	3837363534333231		11	21	31	41	51	61	71	81	
		65 64 63 62 61		41	42	43	44	45				
		75 74 73 72 71		51	52	53	54	55				

(數字에 錯誤가 있을지 모르겠음)

以上에는 讀者 여러분 께서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咬合線과 正中線을 그렸지만 數字만 記錄하여도 位置와 齒牙를 區別 할 수 있다.

例를 들자면 21이면 上顎, 右側, 中切齒이고 73이면 下顎右側乳犬齒를 表示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도 FDI에서 決議한 것과 같이 決議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하는 問題이다. 그러나 結局 다음 期會까지 保留하기로 하였다.

그다음에는 次期 1970년부터 1973년까지의 役員選出 問題이다. 會長 1名, 副會長 4名, 事務長 1名, 會計 1名의 選出이다.

役員選出은 意外로 쉬움게 選出된것 같이 보였지만은 候補選出委員들의 하루밤勞苦는 大端하였던 모양이다.

本會에서는 議論結果 5名의 候補指名委員을 選出해서 그들로 하여금 候補 1名式을 本會에 提出해서 決議하기로 하고

필립핀의 「케리온」 濠洲의 「놀튼」 日本의 「후사야마」 或은 「고노」 말레이시아의 「셀리」 뉴질랜드의 「엘리암」等 5名의 候補指名委員을 選擇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이 다음날 候補名單을 本會議에 提出한 結果 아래와 같았다.

會長 필립핀의 「매, 매, 에라니아」 第1副會長 濠洲의 「알렌, 그라인질」 第2副會長, 泰國의 「하빌, 덴피클」 第3副會長, 인도네시아의 「리틀리, 누어」 第4副會長 홍콩의 「제, 에이취, 양」 事務長 싱가포르의 「림, 안」을 候補로 指名하였으나 辭讓함으로 필립핀의 「엘보사」가 選出되었음. 會計 싱가포르의 「림, 안」

以上이 候補指名委員會에서 指名된 분들이었는데 本會議에서는 異意없이 그대로 全員決議通過하였다. 以上과같이 말많은 1970年 第6回APDF(第1回APRO)總會도 前會長의 「新任役員들에게 간곡한 人事를 마지막으로 말을 마추었다(次號繼續).